

폭력을 동반한 훈육의 미화와 그 의미 - 〈현씨양웅쌍린기〉와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

황지현*

- I. 정당한 폭력, 훈육
- II.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훈육 양상
- III. 정당성 부여 및 폭력성 은혜를 통한 미화
- IV. 폭력의 현장에 나타난 '몸'과 가부장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상적인 가부장이 등장하는 국문장편소설 〈현씨양웅쌍린기〉와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폭력적인 훈육과 그 미화 과정을 통해 위계적 가부장권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긍정되어 왔다. 오늘날 폭력을 동반한 훈육을 긍정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선 시대에 체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작품에서도 체벌은 법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로서 행해지며, 죄인으로 지목된 이들의 신체는 철저하게 대상화되었다. 폭력적 훈육은 여기서 나아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올바른 자식 교육으로 미화되었다. 먼저 당사자나 주변 인물들이 처벌 행위를 긍정하는 다양한 발화를 삽입함으로써 정당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처벌자이자 가해자인 가부장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지워졌다. 한편 두 작품은 가부장의 자애로움을 부각시키고, 체벌이 있는 직후 희담을 삽입함으로써 유혈이 낭자한 체벌이 지닌 폭력성을 상쇄시켰다. 가부장의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상충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두 요소가 한 인물 안에 공존할 때 비로소 정대한 가부장의

* 성균관대학교 강사

위상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부장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화를 통해 가혹한 체벌은 당연하고도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자식들의 역명(逆命)과 그에 대한 혹독한 체벌 그리고 미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부장의 드높은 권위는 가내 구성원들 앞에서 비로소 실체를 가질 수 있었다. 가부장의 호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명령 체계, 그에 제압당하는 대상화된 신체는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인 동시에 그 질서를 재배치할 수 있는 가부장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적 훈육은 몸의 범위를 제한하고 위치를 재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질서 속에 위치한 몸을 만들어 낸다. 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그에 맞는 몸짓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질서에 재편입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특정한 언행의 잘못을 따지고 그 재발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부장의 몸은 수직적 질서의 육화(肉化)로서 체벌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팽창하였다.

핵심어: 훈육, 체벌, 폭력, 고전소설, 가부장

1. 정당한 폭력, 훈육

폭력이 타인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된 역사는 인류사 전체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한정해서 살펴보아도 “귀한 자식은 때로 키워라”,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체벌은 사랑의 때라는 미명하에 긍정되어 왔다. 여기에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며, 그 ‘체대로 된’ 훈육의 방책에 폭력이 포함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오랫동안 가정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던 체벌에도 제동이 걸렸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라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폭력을 동반한 훈육을 긍정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¹⁾ 조선 시대에 체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훈육의 하위 범주와 그 정의를 살펴보면,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이며 상벌, 대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²⁾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인 처벌에 언어적인 질책과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있다.³⁾ 국내에서 정의한 체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교육학 용어사전, 1995)이자, “일정한 교육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두산백과, 2021)이다.

이상의 정의를 고려하면 조선 후기에 널리 향유된 국문장편소설 속 훈육은 타이름 같은 대화 외에 질책과 처벌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실상 국문장편소설에는 다양한 유형과 강도의 폭력이 난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체벌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악인형이거나 혼암한 인물들이 주동 인물인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가하는 경우에 초점을

1) 정부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안을 발표한 2019년 자녀 훈육과 관련하여 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당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경기도교육청, 2019)에서 53.2%가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44.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앞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리얼 미터, 2019)에서는 44.3%가 찬성이고 47.0%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김선희,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자녀 훈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아교육연구』 43, 2023, 87면) 한편 “2021년 6월 19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60.7%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부모들은 학대, 체벌, 훈육에 대한 개념이 혼돈된 채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김정희, 『은유 분석을 통한 학대, 체벌, 훈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2021, 635면)

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1995 참조.

3) 일반적인 훈육법 가운데 처벌이 있는데, AAP(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질책(verbal reprimands)과 체벌(corporal punishment)로 처벌을 설명하고 있다. 질책은 타이름부터 욕설, 모욕, 경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체벌에도 살짝 때리기부터 뺨 때리기, 발로 걷어차기, 두들겨 패기, 주먹으로 치기, 흔들기, 몽둥이로 때리기, 책찍 등으로 때리기 등 아주 다양한 유형과 정도가 있다. (안동현, 『체벌과 훈육 : 더 나은 훈육을 위한 제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20면 참조)

맞추고 주동 인물이 경험하는 고통에 주목해 왔다.⁴⁾ 이에 반해 작중 정당한 훈육의 방편으로 그려지는 폭력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⁵⁾ 하지만 국문장편소설에서 부모의 훈육은 작품이 그리는 이상적 인물상, 지향하는 가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위계적 가부장권의 현실적 면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육의 양상과 그 정당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⁶⁾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이상적인 가부장으로 형상화되는 현택지, 조숙이 이끄는 가문의 서사인 <현씨양옹쌍링기>, <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그 자식들에게 가해진 폭력적 훈육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택지와 조숙은 그들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 가문 내 상징적,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식 세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완성된 인격체로 제시된다.⁷⁾ 한편 두 작품의 주동 인물인 현수문, 현경문 형제와 조무, 조성 형제는 비록 일탈적 행위를 할지언정 작중 그 품모와 역량의 출인(出人)함이 부각되는 이들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일탈조차도 그들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만약 부모나 자식 어느 한쪽이 문제적 인물이라면, 훈육의 정당성이 극

4)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5) 국문장편소설 일반을 중심으로 폭력을 다룬 최어진은 <소현성록>에서 폭력이 훈육을 비롯한 제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 이에 대해 정선희는 “특히 아버지 대(代)의 인물들과 이를 이어갈 자녀대의 관계 양상을 살펴 필요가 있다. 이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가문의 계승이 서사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훈육하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소설 향유층들이 자녀를 어떤 인물로 키워내고자 했는지, 어떤 인간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부모-자녀 간 관계 속에서 소망하던 바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모-자녀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았다.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71면)

7) 이지하는 고전소설 속 가부장상을 양분하고 “가문구성원이나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가문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존경받는 경우”로 <현씨양옹쌍링기>의 현택지, <옥원재합기연>의 소송, <완월회맹연>의 정잠, <현몽쌍룡기>의 조숙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1세대 가부장인 이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식 세대의 미숙함이나 일탈 행위를 계도하고 가문 내외의 부조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적 약점이나 흠결이 부여되지 않은 채 완성된 인격체로 제시된다. (이지하, 『고전소설 속 긍정적 가부장의 형상화를 통해 본 담당층의 인식 차이』, 『한국학』 37, 한국학연구소, 2014 참조)

적으로 옹호되거나 반대로 큰 흠결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처벌자와 피 처벌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폭력적 훈육이 어떤 방식으로 미화되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에는 각각 4건과 5건의 폭력적 훈육 장면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처벌자와 피처벌자가 모두 주동 인물이며, 처벌 사유가 피처벌자의 일탈적 행위이고, 처벌자의 목적이 자식을 계도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⁸⁾ 유희이 낭자한 폭력의 현상이 정당한 자식 교육의 일환으로 그려지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인물들의 태도와 전후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그 미화에 동원되는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작품이 향유되었을 당시에 체벌 장면이 폭력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유층들은 현택지나 조숙의 선택을 옹호하는 한편 체벌 이후에 이어지는 다양한 미화 장치들을 문면 그대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 그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체벌이 현대까지 긍정되었던 맥락을 고려한다면, 체벌로서의 폭력이 어떻게 미화되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유효한 작업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가부장권에 의해 재배치되는 몸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체벌의 현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권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데 동원되는 폭력의 성격과 위계적 가부장권의 구체적인 형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정한 폭력이 허용을 넘어 미화되는 것은 해당 사회가 질서의 유지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방식으로 저울질하고 균형점을 잡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8) <현씨양옹쌍린기>에 등장하는 4건의 체벌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은 죄 없는 부인을 박대하고 장인에게 무례한 말을 일삼은 아들을 장인 앞에서 그 체면을 살려줄 의도로 매질한 것이다. 계도의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현몽쌍룡기>의 경우 제외한 2건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의 모해로 양육설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던 조성이 부인을 박대한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매를 맞은 것인데, 이때 조성의 선택이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도의 대상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 배제하였다. 또 다른 사례인 금선공주의 계교로 그에 침혹한 조부가 부친에게 매를 맞은 것은 술법에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한편 조부가 부인에게 불만을 품고 아들에 분풀이를 하기 위해 매질한 사건은 정당한 훈육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II.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훈육 양상

여기서는 작중 이상적 가부장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이 자식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훈육의 방책으로 체벌을 선택한 사례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3건, <현몽쌍룡기>에서 2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훈육 양상을 처벌자와 피처벌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두 작품에서 그리는 사건들은 상당한 유사성을 띠지만 동시에 일정한 편차가 있다.

1. 법도에 맞게 체벌을 행하는 처벌자와 그의 권능

집안을 이끄는 가부장은 가내에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소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⁹⁾ 그렇다면 혼암한 것으로 그려지는 여타의 가부장과 현택지, 조숙의 체벌은 무엇이 다를까.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절한 훈육은 그 방법, 강도, 용서의 측면에서 모두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 물론 이때의 올바른이란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이 향유되었을 당시의 훈육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기 위해 올바른 처벌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살펴보겠다. 아래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이 자신을 구타하는 부친에게 사리에 맞게 행동할 것을 일깨우는 장면이다.

공이 노기 엄널혀여 친이 니러는 공즈의 관을 벗기고 머리롤 프러 손의 잡고 당춧 셔안 우희 옥석연으로 곱직을 못지 아니코 어즈러이 치니 공지…쇼리롤 운 화이 햐야 곱오더 “희으의 불효히미 크거니와 죄 잇시면 시노로 당칙을 햐셔도 늦지 아니햐옵거늘…대인이 쇼즈롤 칙벌햐시미 그 죄목을 니르지 아니햐시고 다만 돌노뵈 즈식을 치샤 과도햐를 씨닷지 못햐시니…간치 아니햐리오. <유효

9)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도 훈육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가부장의 입지를 지닌 현택지와 조숙은 자신들의 부인에 비해 보다 폭넓은 훈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부장이 부재하지 않는 한 악인형 인물을 제외한 부인이 독단으로 자식에게 체벌을 가하는 장면은 국문장편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길연은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심판관 역할을 하는 반면, 어머니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양상을 띤다.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276면 참조)

공선행록>, 49~51면.

위 인용문에 따르면, 자식에게 죄가 있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올바른 훈육이 될 수 있다. 처벌에 앞서 먼저 죄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는지 인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매질을 할 때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시노를 시켜서 태장(笞杖)하는 것이 온당하다. 유정경은 둘째 아들의 모함을 듣고 유연을 매질했다는 점에서 그 사유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법도를 어김으로써 자식을 올바르게 이끄는 가부장의 상에서 어긋나고 있다.

죄우로 하여금 스줄을 불너 형장 기구를 드리라 하니...상세 려성하여 문져 한님을 울너 미고 슈죄 왈 “부즈는 텃성지친이라. 호리만흔 일도 감히 속이며 기이지 못홀 거시어늘 네 몫빨 형을 도와 아비 속이기를 능스로 아니 그 죄 불승통 희흔지라. 니 분디 조용하며 느죽고져 흐거늘 여등이 사류명교의 죄인이 되니 엇지 용서하리오.”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94~95면.

그렇다면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는 어떨까. 두 작품의 처벌 사례는 모두 먼저 죄목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노를 시켜 매질을 할 뿐만 아니라 매마다 죄목을 소리 높여 꾸짖는다. 이는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아들을 직접 구타함으로써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킨 <유효공선행록>의 유정경과 큰 대조를 이룬다. 처벌의 현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술자는 평소의 온화함과 대비되는 가부장의 엄중한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현장에 있던 이들이 그 위엄에 위축되고 제압당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의 권위를 한껏 드높이고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택지는 평소 온화하던 성품이 동천설한(冬天雪寒), 북풍뇌우(北風雷雨) 같아 사졸들은 그의 엄한 호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현몽쌍룡기>도 “미우의 상풍이 늑늑하고 고찰하는 호령은 산악이 문허지는 듯”한 위엄 있는 조숙의 풍모(風貌)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처벌의 사유와 강도를 보면, <현씨양옹쌍린기>의 수문과 경문은 윤희빙을 둘러싼 사건을 숨기려다 매를 맞았다. 이때 현택지는 부명(父命)을 가법

게 여기는 아들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분개한다. 두 번째로 수문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혼인을 거부하는 윤희빙을 껄뽀하게 여겨 윤부에 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친의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한편 경문은 부친이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 후부인에 대한 불만을 부인 주여교에게 쏟아낸 것을 들켜 처벌받았다. 이때 체벌의 강도는 보통 20~40장 내외이며 20장보다 적게 맞은 경우는 없었다. 처음부터 태장의 횃수를 정하고 그것을 채운 후 매질을 중단한 것은 형의 빌미로 함께 맞았던 경문의 사례가 유일하며, 그 외에는 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현택지가 매질을 멈추지 않자 주변에서 개입하여 멈추게 하였다. 그마저도 주변의 권유를 듣지 않고 매질을 계속해 장시랑이 몸소 말려야 했다. 이는 현택지가 매질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거나, 마음속으로 정한 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는 뜻이 된다. 이를 통해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않는 엄격한 가부장의 모습이 부각된다.

<현몽쌍룡기>의 경우 조무는 수앵과 완월정에서 정을 나누던 현장이 발각되면서 벌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연소저와 혼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을 속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형제가 함께 벌을 받았다. 첫 번째 사건에서 조무는 30장을 맞았는데, 형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용서할 뜻이 없어 보이자 조성이 급히 조모인 왕부인을 불러오면서 체벌이 중단되었다.¹⁰⁾ 한편 연소저의 사유인 두 번째 사례에서 조성은 30장, 조무는 40장을 때린 후 멈춘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조숙이 죄에 따른 벌의 정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현택지와 조숙의 체벌 강도는 일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중 이러한 문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정리하면 법도에 부합하는 체벌 방식과 절차가 중요하며, 체벌의 강도는 그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과도한 체벌, 지나친 폭력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10) 이때 왕부인은 귀한 손자를 임의로 친다며 조숙을 크게 꾸짖는데, 실제로 조무의 죄가 무엇이었는가에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 장시랑의 권고를 무시했던 현택지와 달리 조숙은 모친의 개입에 곧바로 체벌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현택지와 조숙이 체벌을 통해 기대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으로 체벌의 사유는 다양했다. 이들은 성적인 방종, 부인을 향한 냉대, 웃어른에 대한 무례함, 혼사에 직접 개입 등의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 따라서 체벌은 일차적으로 이들의 개별적 일탈 행위를 교정하려는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의 사건들은 일정한 상동성을 띠는데, 이때 근본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바로 역명(逆命)이다. 현택지와 조숙이 가장 문제시하면서 경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명령을 거스르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체벌은 그러한 방종을 제어하기 위함이다.¹¹⁾ 평소에는 기세등등하였을 수문과 경문, 조무, 조성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형틀에 묶어 사정없이 매질하는 장면을 통해 심판관이자 처벌자의 위엄이 극화되는 것이 바로 법도에 부합하는 처벌의 현장이다.

2. 피처벌자의 반응과 죄인의 몸으로 대상화되는 신체

이와 대조적으로 처벌받는 이들은 부친에 의해 “죄인”이라고 호명되는 순간, 곧바로 죄인의 몸으로 전락한다. 현수문 및 조무 형제는 대단한 위엄을 과시하는 부친 앞에서 식은땀에 옷이 젖을 정도로 압도된다. 이들은 부친의 용서가 있을 때까지 관대한 처사를 기다리거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한다. 죄의 대가는 몸에 가해지는 폭력인데,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에서 매질을 당하는 죄인들의 몸은 여타 고전소설에서 태장 장면을 서술할 때 동원되는 상투적인 묘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보통 30여 장 내외의 매를 맞게 되며, 그 과정에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혈어 유헤이 낭자하고 그로 인해 안색이 창백해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¹²⁾ 그런데 그 묘사를 보면 실상 심각한 부상임에

11) 방종에 대한 벌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향후 동일한 언행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명을 향한 체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가부장권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2) 옥골설취 혀어져 뉴혈이 돌돌하고 신식이 촌지 굶니...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95면; 둔육이 혀어져 성혈이 넘니하니...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96면; 어스의 기부 혀어져 뉴혈이 가득하니...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삼, 40면; 옥갖흔 살의 선혈이 낭즈하니... <현몽쌍룡기> 권지일, 67면.

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투성은 체벌을 여느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흔한 태장의 한 장면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피처벌자의 고통에 이입하는 것을 방해한다.¹³⁾

다음으로 죄인의 몸으로 대상화되는 이들의 처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작중 현수문과 경문, 조무, 조성이 체벌을 피하기 위해 반항하거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반응에는 일정한 온도 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논죄(論罪)하는 부친 앞에서 이들이 보이는 1차적 반응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순순히 죄를 인정하면서 의관을 끄르고 직접 당하에 꿇어앉아 죄인임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수문과 경문은 역명(逆命)을 가볍게 여기는 농담을 하다가 들키자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벌을 받을 준비를 한다. 한편 <현몽쌍룡기>에서 연소저를 불고이취(不告而娶)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교를 꾸몄다가 들키자, 조무와 조성은 모두 죄를 인정하고 계하에 내려가 청죄한다. 이때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조무는 지난 행동을 “불초자의 암활한 죄”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목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수문은 윤부에서 난동을 부린 죄로 질책을 받자 오히려 죄를 청하면서도 남의 규문에 난입했던 것은 아니라며 죄목 둘 가운데 하나를 부정한다.¹⁴⁾ 물론 그의 태도에 대해 현택지는 어이없어 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매질을 시작한다. 심지어 그는 여기서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직접 형판에 나아가 오히려리는데, 이는 사졸이나 시노들에 의해 형틀에 올려져 수족을 묶이는 수동적인 몸

13) 모든 체벌 사건에 있어서 향유층들이 피처벌자를 동정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처벌 사유에 따라서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형화된 장면 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4) 어시 고두부복 청죄 왈 “혜오의 죄 빅스무석이오나 또한 무고히 남의 규문의 드러가 착란 흥미 아니라. 윤시는 희오의 고인이라. 맞춤 저 곳지 비여 다룬 너지 업슴닐골 소즈의 처첩 츠즈미 혼난 죄 아닌가 호와 가오미오. 남의 부녀의 도장 속의 드러가미 아니오니 아야는 성 노를 노츠시고 다만 처음 소즈의 역명호 죄로는 일빅장을 마즈도 감슈히로소이다.”...어시 형판의 늑아가 업더여 우러러 고 왈 “혜오의 슈장흥미 역명호 죄오 윤가의 드러가문 죠곰도 죄 아닌가 호오며 다만 윤가 부즈의 교중흥미 극히 통히호도소이다.” <현씨양옹쌍린기> 권 지삼, 38~39면.

과 다른 양상을 띠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다. 죄인의 몸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일시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문책을 당하는 상황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이 상호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물론 당당한 현수문조차도 역명한 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100장을 맞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수문의 태도 자체를 부권(父權)에 도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몽쌍룡기>에서도 조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한차례 보인다. 조무는 수행을 놓아준 후 자신을 꾸짖는 부친 앞에서 방탕패려(放蕩悖戾)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한다.¹⁵⁾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그는 이미 부친이 자신의 전후 행동을 모두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다분히 의도성을 띤다. 앞서 조무는 부친이 자신과 수행을 모두 잡아 오라는 명을 내린 것을 들었지만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수행을 놓아준 바 있다. 부친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상황을 최대한 지연시킨 조무의 행동은 수행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 죄를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 부친의 분노가 온전히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써 수행에게 돌아갈 화를 줄이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을 때에 현수문 형제와 조무 형제는 어떤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며 그 형상도 극히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매를 맞는 순간의 태도에 대해서는 작중 상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으나, 경문이 후부인의 빌미로 주여교를 박대하다가 매를 맞을 때는 “감히 일언도 못하고 매를 맞는다”라고 서술된다. 그리고 기운이 출인(出人)한 조무조차도 이런 중형은 당해본 적이 없어 심하게 상처를 입은 것으로 그린다. 실상 서술자는 매를 맞는 시점에서 죄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매질을 당하는 죄인의 몸을 묘사할 때 피부가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상화된 몸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15) 공지 비복 왕 “쇼지 엄명을 맞자와 발이 일즉 문밧글 아지 못호고 머리롤 굽혀 성경을 읽으니 었디 방탕패려호 죄를 지엇시리잇고. 금일 엄피 불초지라 호시니 희인 성어심세의 엄훈을 역호 일이 업습고 좌와를 찌는 적이 업시 근시호와 궁궁업업호오니 불초호은 죄상이 잇는 줄은 찌듯디 못호는이다.” <현몽쌍룡기> 권지일, 64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작중 소략하게 다루었던 위의 내용과 달리 길게 서술되는 대목은 매를 맞은 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부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애걸하는 죄인의 형상이다. 비록 매를 많이 맞았다 한들 이들은 부친이 온전히 용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의 몸이다. 처벌자이자 심판관이었던 부친의 입에서 자신들을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야 비로소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특히 용서가 며칠에 걸쳐 지연되는 양상을 띠는데, 수문과 경문은 수차례 애걸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100장을 더 맞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한다.¹⁶⁾ 이들은 체벌이 중단되면 그 직후 피부가 찢어지고 핏자국이 가득한 몸을 이끌고 부친 앞에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몹시 괴로워하는 등 심적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애걸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현택지가 다시 한번 자식들을 질책한 후 비로소 용서한다.¹⁷⁾ 이렇게 용서의 과정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온화한’ 현택지의 엄격함과 현부의 가법이 부각되고, 용서를 갈구하는 자와 용서할 권한을 지닌 자 간의 위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현몽쌍룡기>에서 조숙은 용서를 지연하지 않기 때문에 매질이 끝난 후 이와 관련된 상황이 곧바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띤다. 대신 매를 맞은 직후 고통스러우면서도 아픔을 억지로 참고 부친 곁에 시좌(侍坐)하는 조무 형제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허락 없이는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몸을 그리고 있다. 용서에 대한 이러한 온도 차는 현택지와 조숙의 기질적 차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문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결정권을 쥐 현택지와 달리 조숙은 모친 왕부인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훈육하는 데 일정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⁸⁾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풍(家風)이 다르다는 추정이 가능하다.¹⁹⁾ 이러한 가법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가풍은

16) 낭인이 고두사죄 왈 “쇼즈등이 죄 중히미 여산혹은지라. 원컨더 다시 안전의 일빅장을 맞고 슬하의 용납하시를 바라느니라.” 하고 지삼 인결히니...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102면.

17) 이러한 양상은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형제가 각각 따로 벌을 받았을 때도 반복된다.

18) 고은임은 <소현성록>에서 양부인이 시비 판단의 준거가 되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있음을 짚었다.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7~48면 참조) <현몽쌍룡기>의 경우 태부인이 양부인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숙의 입장에서 그 뜻을 쉽사리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택지와 조숙 또한 대대로 내려온 가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가부장제의 수직적 질서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III. 정당성 부여 및 폭력성 은폐를 통한 미화

매를 맞은 이들의 몸은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용서를 받기 전까지 죄인의 몸으로 그것을 감수하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옷에 튄 채로 다시금 꿰어앉아 안색을 바르게 하고 부친을 대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물론 서술자도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폭력이 곧바로 미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의 작자는 유혈이 낭자한 폭력이 있던 직후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폭력적 훈육을 올바른 자식 교육으로 매끄럽게 연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미화의 과정에 동원된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자의 발화를 통한 정당화

폭력에 대한 가장 손쉬운 정당화는 피해자²⁰⁾의 입을 통한 긍정이다. <현씨양옹쌍린기>에는 현경문이 직접 체벌을 긍정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장생 형제가 수문과 경문의 심한 상처를 보고 놀라며 숙부의 체벌이 비인

19) 해당 사례를 근거로 현부의 가법이 조부보다 더 엄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작품 전부를 고려하면 조부의 가법이 보다 느슨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부는 두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법으로 인해 사족 여성인 윤소저가 현수문의 첩실로 들어야만 했다. 한편 현수문 형제가 창기들을 가까이하여 여러 첩들을 가내에서 거느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용인한 <현몽쌍룡기>와 차이가 있다.

20) 현수문 등이 체벌 사건에 있어서 온전한 피해자인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들이 타인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빌미가 되어 체벌을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피해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고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그 폭력성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수문 등이 자행한 것이 엄연한 폭력이고 과오이듯이 현택지와 조숙의 체벌 또한 폭력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을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물론 당대의 관점에서 그들이 피해자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非人情)이라고 하자, 경문은 곧바로 “탄하의 무불시져부피시니 쇼데 등이 소행이 불민히미라. 엇지 야야 과도하시미리오.”라고 하며 옆에 있던 수문은 “나는 빅장을 마자도 가하다”고 한다.²¹⁾ 이어서 장생 형제가 수궁하지 않고 어릴 때와 달리 관직이 있는 상태에서도 몸이 상하도록 맞았다며 문제삼자, 경문은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면서 “타일 과거하여 좁직명이는 잇거든 숙뵈 혹 치실 일 잇서도 벼슬 놉흐니 밋 못마줄로다 발악하라”고 응수한다. 자식에게 죄가 있다면 부모는 자식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매질할 권리가 있으며, 자식은 설사 체벌이 몸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강도라 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장생 형제의 발언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이다. 부모는 나이 든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과 훈육의 정도에 차이는 없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훈육에는 체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나이 든 자식을 체벌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훈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수문과 경문은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심한 매질을 당한 현경문이 장생 형제의 말에 이렇게 응수한 것은 현택지의 체벌을 옹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매를 맞은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현택지의 훈육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웠던터러 작중 예법을 아는 정대한 군자로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의 입을 통한 긍정은 정당성을 쉽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몽쌍룡기>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정당화를 피하고 있다. 조무는 연소저의 일로 아우 조성과 함께 매를 맞은 그날 밤 동생까지 죄를 입게 만든 자신의 행실을 크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²³⁾ 흥미로운 것은 이때 서로 매를 맞은 상처를 돌아보

21) <현씨양옹쌍룡기> 권지어, 99면.

22)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현경문은 부인 주여교와의 갈등으로 하참정, 주여사의 앞에서 매질을 당하자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바 있다. 하지만 이때의 수치심은 다른 조정 대신들 앞에서 매를 맞았다는 것과 그 빌미가 부인과의 관계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3) 청취 즉시 연갑을 열고 금창약을 너여 아의 상처에 발고 췌무너 울며 말 “우형이 사람의 형이 되어 현대를 어진 일노 가르치지 못하고 도로혀 불미흔 죄를 지어 현대에게 죄를 넘게 하니 내 하면목으로 넘어세호리오.” 하고 츠차호를 마지야니니... <현몽쌍룡기> 권지십육, 32면.

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후회라는 것이다. 매질을 선택한 것은 조숙이지만 조무에게 그 처벌자이자 가해자는 부친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 자신이 매를 맞은 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며, 문제는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은 동생이다. 그 일이 자신의 벌미이기에 동생이 입은 피해는 자신의 탓이 된다. 해당 장면에서 처벌자이자 폭력의 가해자인 조숙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 이러한 대목을 삽입한 것은 죄인으로서의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체벌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상에서 당사자의 입을 통한 정당화를 확인하였다면, 아래에서는 주변인들의 발언으로 처벌이 긍정되는 정황을 살펴보겠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두 작품 모두 그 주변인이 바로 ‘죄인’의 어머니들이라는 것이다. 장부인과 위부인은 처벌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체벌 자체와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발언은 자식의 행동과 처벌에 대한 평에 가깝다. 그런데 그 평이 바로 가부장의 훈육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을 분명하게 띤다.

직간접적인 발언들을 살펴보면, <현씨양옹쌍링기>에서 장부인은 윤소저에 대한 행패로 벌을 받은 일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현수문의 행동을 께 씌하게 여긴다.²⁴⁾ 처벌 자체를 옹호한 것은 아니지만 현수문의 행동을 문제시켰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긍정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수문을 계도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택지의 체벌이 훈육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음으로 수문이 윤부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매를 맞은 후 자신을 찾아오자 아들을 비난하면서 100장을 맞아도 불쌍하지 않다고 한다.²⁵⁾ 당시 수문은 40여 장을 맞은 상태였는데, 비록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을 것이지만 더 맞는다고 해도 안쓰러울 것이 없다는 발언 역시 현택지의 처벌이 정당하며 그 강도 또한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긍정한 것이다.

조숙이 현택지보다 쉽게 용서한 것과 대조적으로 <현몽쌍룡기>의 위부인은 장부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조무가 수맹의 일로 매를 맞은

24) 부인이 츠스톨 알고 공주의 남나를 폐심히 너기나... <현씨양옹쌍링기> 권지이, 101면.
 25) 이 일을 알고 어스의 모질을 혀츄 알 “거번 마즌 곳이 치 아므지 아냐셔 또 수장흔니 저런 모진 인시 어더 이시리오...진실노 빅장을 마즈도 어엿브지 아니토다.” <현씨양옹쌍링기> 권지삼, 41면.

후 아침 문안 인사 자리에서 농담을 하자 위부인은 죄중벌경(罪重罰輕)하다면서 그를 엄하게 꾸짖는다. 조무의 행동은 부인의 입을 통해 방탕음일한 것이 되며, 30여 장을 맞고 태부인에 의해 중단되었던 조숙의 처벌은 오히려 풀어진 것으로 치부된다. 서술자는 이러한 말을 할 때의 위부인의 태도가 단엄하고 차가운 달 같다고 묘사하는 한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모두 낮빛을 고치면서 희담을 하던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그림으로써 그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이러한 위부인은 엄모(嚴母)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조숙의 처벌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벌이 약했다고 함으로써 자식의 피부가 찢어지고 유흥이 낭자하도록 맹타한 조숙의 선택을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태부인은 비록 자신이 처벌을 중단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부인을 크게 칭찬한다.²⁶⁾ 위부인의 발언이 태부인을 통해 긍정되는 것은 흥미로운 양상이다. 실상 풀어진 것은 조숙이 아니라 아끼는 손자가 매질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태부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중에서는 이러한 위부인의 발언이 태부인을 겨냥한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채로 넘어간다. 이는 대가족의 구성에서 훈육에 일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애 부각 및 희담(戲談)으로 폭력성 은폐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강도 높은 처벌의 폭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는 처벌을 결정한 가부장의 자애로움을 부각시키는 한편 처벌이 있는 직후에 희담을 삽입함으로써 유흥이 낭자한 처벌이 지닌 폭력성을 가리고 있다.

훈육과 사랑은 상당한 연동성을 지닌 개념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훈육에 있어서 ‘사랑’은 처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²⁷⁾ 현택지와 조숙은 잘못을 저지른 아

26) 티부인이 탄복 왈 “현부는 진실노 빙모의 우회라. 조식이 었디 현인군지 되디 못홀가 우려 흐리오. 슈연이나 으히 년소 유흥호여 모로미 식육이 업스리니 이변 거조난 화좌의 타시로 다.” <현몽쌍룡기> 권지일, 79~80면.

27) 김선희는 빅데이터를 통해 ‘자녀 훈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면서 매개 중심성이 높

들들을 꾸짖을 때 한껏 위엄을 드러내는 한편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처벌이 끝난 후에는 그러한 엄격함과 상반되는 자애로움을 부각시키는 서술이 이어진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택지는 심한 매질을 하고서도 수문과 경문에 대한 노여움을 쉽사리 풀지 않는다. 그날 밤 시침(侍寢)하러 온 돌을 보고 끌어 내치려 하자 이들은 다시 간절하게 사죄하는데, 이때 서술자는 평소 현택지가 자식들에게 타인과 비교하지 못할 정이 있다고 강조한다.²⁸⁾ 그리고 그 직후 다시 한번 훈계한 다음 용서하여 가까이 앉힌 후 사리에 맞게 타이른다. 이로 보면 실상 현택지는 두 아들의 잘못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며, 앞선 처벌의 수위는 실제 죄값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정으로 인해 용서했다는 뜻이 된다. 비록 체벌이 상당히 가혹하였지만 이러한 서술을 통해 현택지의 인자함이 부각되는 한편으로 체벌의 수위가 지니는 폭력성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현몽쌍룡기>의 조숙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택지보다 쉽게 용서했던 것에 비례하여 체벌을 전후로 자식에 대한 애뜻한 정을 드러내는 대목이 보다 상세하게 드러난다. 그는 수영의 일로 조무에게 태장을 가하던 중 그의 기질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구산 굶흔 즈익”²⁹⁾을 참고 매질을 이어가는가 하면, 그날 밤 겉으로는 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무가 잠든 후에는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밤을 지새운다.²⁹⁾ 서술자는

은 단어로 ‘사랑’을 제시하고 훈육의 목적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 자료에서는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은 대부분 ‘사랑을 이유로’ 또는 ‘사랑하니까’였으며, 그는 ‘사랑’이라는 구체화되지 않은 용어의 남용이 우리 사회에서 체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김선희, 앞의 글, 99면 참조)

28) 공이 서하지척을 보고 낭즈를 거두어 익익히미 타인의 비치 못하는 정이 잇는지라.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102면.

29) 공이 굶혀 물너라가라 아니혹 낭즈를 다리고 밤을 지널 시 비록 외모의 엄혹을 피나 어린 아히 처음으로 등장을 입을 앓기는 미음이 편티아냐 잠이 오디 아니흔디라. 고요히 누어 아즈의 거동을 보니 흥이 야야의 취침헌신 후 비로쇼 웃녀히 금니를 츠즈 버기의 쓰러지매 오릭디 아냐 잠드러 몽흔흔 가운데 통성이 의익히고 췌여실 제는 기운이 세준 고로 알프물 참으나 잠들물 인하여 즈연 통성이 의익히니 공이 누우쳐 익런지심이 뉴동흔매 이에 니러나 친히 그 옷술 벗겨 누일 시 상쳐를 솔피니 가티 상하여 뉴혈이 돌지히고 혼흔혀 몸을 만지는 줄 모로논디라. 공이 크게 앓겨 년혀여 것히 누이고 어로만져 찰르 일우디 못흔디라. <현몽쌍룡기> 권지일, 74~75면.

자식의 아픔에 연연하며 마음을 쏟는 조숙의 모습과 그 심정을 세심하게 짚어냄으로써, 이러한 자애를 품은 아버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려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간 선행 연구에서는 가부장의 엄격함과 자애로움이 공존하는 양상에 대해서 “여성 향유층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³⁰⁾로 파악하거나, 양가성으로 인해 “부성(父性)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며 모순된 요구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³¹⁾이 있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아버지는 개념상에서는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두 상이 상충하는지는 더 따져볼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엄한 아버지가 지닌 폭력성은 자애로운 아버지로 인해 상쇄되고, 이로 인해 엄한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은 자식을 아끼는 훈육으로서 정당화를 넘어 미화되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아버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한 인물 안에 두 상이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정대한 가부장으로서의 위상이 온전히 설 수 있다. 즉, 엄격함에 자애로움을 삽입함으로써 폭력성을 소거하여 엄하되 폭군처럼 군림하지 않는 아버지이자 가부장이라는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부모’라는 관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며, 나아가 위계적 관계에서 소위 윗사람의 상 또한 이와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윗사람은 관대하고 포용적이지만 동시에 아랫사람의 잘못에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애로움이 공존한다고 해서 체벌의 폭력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단지 교묘하게 은폐되었을 뿐이다. 자애로움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용인되고 긍정될 수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자애로움은 위계적 가부장권이 정당화되고 유지되는 데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대목은 가부장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정당화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일 수 있다.

체벌을 가한 인물의 자애로움이 해당 행위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상쇄시켰다면, 체벌이 있는 직후 삽입되는 회담에서는 주변 인물들과 체벌을 받

30) 정선희, 앞의 글, 189면.

31) 한길연, 앞의 글, 296~297면.

은 이들의 해학이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면서 폭력성을 희석한다. <현씨 양옹쌍링기>에서는 수문이나 경문이 매를 맞아 앓고 있을 때마다 장생 형제가 나타나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심지어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정당(正堂)으로 돌아가는 형제의 뒤에서 상처 자리가 아파 평소처럼 걷지도 못하는 경문을 보고 뒤에서 희희낙락하기도 한다.³²⁾ 실상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이고 장생 형제 또한 혈흔이 가득한 옷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수문과 경문을 놀리기에 급급한데, 장생 형제의 녀살은 실제로 웃음을 이끌어낸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술자는 위엄 있는 가부장의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살점이 떨어지고 유혈이 낭자한 체벌을 감행하는 모습을 독자들의 눈에 선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장생 형제의 이러한 희담은 매를 맞아 참담한 몰골일 수문과 경문의 신체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현몽쌍룡기>에서 이 같은 희담이 벌어지는 공간은 태부인 앞에 모여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순간이다. 태부인은 손자 조무에게 전달 매를 맞은 연고를 물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이때를 틈타 조무는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꾸며낸다. 그 자리에 조속도 함께 있으며 웃음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조무의 혼담으로 대화 주제가 이동한다. 한편 조무와 조성이 함께 매를 맞았던 사건에서도 유사한 희담이 삽입되는데, 이때도 태부인이 전후 곡절을 자세히 알려달라며 조무와 조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곁에 있던 부인들도 마침내 연소저와의 혼인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고는 조무를 기롱하는 등 분위기는 이미 조무와 조성의 죄나 그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³³⁾ 이렇게 처벌의 맥락을 매일 이루어지는 문안 인사 자리와 연결시키고 가문의 구성원들이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공유하게 하는 것은 체벌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상의 자애로움 강조와 희담 삽입은 체벌의 폭력

32) 낭인이 피 묻은 옷을 갈고 흔가지로 정당의 나아갈시 혹은는 장제 디히디 흥턴지괴라 관거 치 아니디 한님은 형비 평상치 아니니 당성 등이 뒤히 쫓와 오며 입을 받고 웃더라. <현씨 양옹쌍링기> 권지이, 100~101면.

33) 태부인이 등을 두드려 왓 “무으의 발월흔 기상은 아란지 오라거니와 츠으의 처변이 진유즈의 기계를 불워 아니홀리로다.” 츠시 석뉴소 삼인이 츠스를 알고 청후를 빅단 기롱하니 청휘 화연이 웃고 답언이 풍싱홀야... <현몽쌍룡기> 권지십륙, 34~35면.

성을 직간접적으로 상쇄하고 은폐시킴으로써 가혹한 체벌을 미화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IV. 폭력의 현장에 나타난 ‘몸’과 가부장권

심각한 수위의 폭력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미화됨으로써 올바른 훈육이 되었다. 물론 당대의 국문장편소설 향유층에게 체벌이 그 사유만으로도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작중 다양한 장치들이 체벌과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망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체벌은 당연하고도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어떤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부장이라면 옹당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자식을 매로 엄히 다스려야 하며, 자식된 도리는 자신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수위의 체벌이든 달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현씨 양옹쌍링기>와 <현몽쌍룡기> 외에도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체벌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가부장들이 그려지곤 한다. 한편 마음이 약해져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는 가부장에 대해서는 작중 인물들은 물론 서술자에 의해 부족한 인물로 평가절하된다.

이러한 가장이자 부(父)의 형상은 한 개인의 인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엄격한 가풍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엄격한 가풍은 단순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나 가부장 한 개인이 발휘하는 권위를 넘어서 가문 전체의 수직적 질서와 연관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식들이 부친의 명을 거스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부친의 명을 어기는 행동은 가부장권의 균열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만약 자식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가내 구성원들이 가부장의 명령을 한 치도 어기지 않는다면 체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가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의 역명(逆命)과 그에 대한 혹독한 체벌 그리고 미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부장의 드높은 권위는 가내 구성원들 앞에서 비로소 실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실상 현택지와 조숙은 8척이 넘지 않는 몸을 지닌 인간으로서 많은 가내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가내 구성원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지점이다. 아무리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휘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역설적으로 그 힘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체벌의 현장은 그러한 가부장의 권능을 모든 가내구성원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가부장의 호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명령 체계, 그 앞에 엎드려 제압당하고 당하에 끌려내려 갔다가 다시 말 한마디에 당 위로 오를 수 있는 대상화된 신체는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인 동시에 그 질서를 재배치할 수 있는 가부장의 권능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가내 구성원들에게 재확인시킨다. 평소에는 체감할 수 없었던 가부장의 힘이 역명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식들이 부친의 명을 거스른 것은 가부장권에 균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의 권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현몽쌍룡기>에서 태부인의 개입으로 조숙의 체벌이 중단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보다 상위의 힘으로 인해 행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가부장권을 침해당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조숙 또한 자신의 모친에게 굴복함으로써 종적 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부장권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카리스마와 같은 위업이 아니라 수직적 질서 그 자체이다. 가부장권이 위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그가 수직적 질서의 육화(肉化)일 때 비로소 온전히 가능해진다.

몸은 세상과 소통하고 경험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부장권은 그러한 몸의 형상을 띠고 있는 동시에 몸에 그 힘을 발휘한다. 체벌을 받는 이들은 자의(自意)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몸이 형틀에 올려져서 묶이고 멈추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매질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다.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부장의 용서가 없이 이들은 죄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웅크리면서 용서를 갈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아랫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몸의 범위이자 위치성이다. 폭력적 훈육은 몸의 범위를 제한하고 위치를 재확인시

킨다는 점에서 질서 속에 위치한 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위계와 질서는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영향력하에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재조직한다. 그로부터 이탈하는 사건은 도리어 이러한 위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그에 맞는 몸짓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질서에 재편입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체벌은 단순히 특정한 언행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한 행동의 재발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가부장의 몸은 체벌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팽창된다. 그의 호령은 뜰을 가득 채우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사졸과 시노들은 가부장이 부리는 수족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때 우리는 8척이 채 되지 않을 한 인간의 몸적 공간이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가부장권이 현현한다.

34) 메를로 퐁티는 몸의 공간성에 대해 논하면서 몸적 공간의 연장 가능성을 일상성과 습관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바 있다. (몸문화연구소, 『몸의 철학』, 펠로소픽, 2021, 106~107면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몸문화연구소, 『몸의 철학』, 필로소픽, 2021.

2. 논문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31면.

김선희,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자녀 훈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아교육연구』 43, 2023, 85~104면.

김정희, 『은유 분석을 통한 학대, 체벌, 훈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2021, 633~652면.

안동현, 『체벌과 훈육: 더 나은 훈육을 위한 제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17~22면.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면.

이지하, 『고전소설 속 긍정적 가부장의 형상화를 통해 본 담당층의 인식 차이』, 『한국학』 37, 한국학연구소, 2014, 191~220면.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면.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36면.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13~144면.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269~303면.

The Glorification of Violent Discipline and its Meaning

- Focused on “Hyönssiyangungssangnin’gi” and
“Hyönmongssangnyonggi” -

Hwang, Jihyun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reality of hierarchical patriarchy through violent discipline and its glorification process, focusing on Korean long-form novels, “Hyönssiyangungssangnin’gi” and “Hyönmongssangnyonggi”, in which ideal patriarchs appear. The physical punishment of parents has been affirmed as a hawk of love. Considering that there is still a perception that affirms violent discipline today, it is natural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accepted natur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both texts, corporal punishment is considered a legitimate punishment suitable for the procedure, and the bodies of those who were designated as sinners were thoroughly objectified. Furthermore, violent discipline was glorified as the right child education through various ways. First, justification was achieved by inserting various utterances affirming punishment behavior. Through this, the existence of the patriarch, the punishment and perpetrator, was naturally eliminated. On the other hand, the two texts highlighted the patriarch’s benevolence, and immediately after the corporal punishment, a joke was inserted to offset the violence of bloody corporal punishment. There has been a discussion that the strictness and benevolence of the patriarch conflict,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status of a genuine patriarch can only stand fully when the two elements coexist in one person. This can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how patriarchy works. Through this glorification, harsh corporal punishment was accepted as natural, ordinary. On the other hand,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of children’s disobedience, harsh corporal punishment, and glorification, the patriarch’s high authority was only able to become substantial in front of the family members. The command system, which moves in perfect order under the command of the patriarch, and the objectified body that is overpowered by it show the patriarch’s power to rearrange

the order at the same time as a guardian of order. In terms of limiting the scope of the body and reaffirming its position, violent discipline creates a body under order. As a sinner, being asked to voluntarily make appropriate gestures is more than just blaming certain words and actions and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uch actions. It encourages the person to re-enter the order on his own. In contrast, the patriarch's body expanded dramatically at the very scene of corporal punishment as a canal of vertical order.

Keywords : discipline, corporal punishment, violence, classic novel, patriarch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 ~ 2024. 11. 10.

계재결정: 2024. 11. 10.

